



22일 아오티 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승리를 거둬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팀 선수들이 경기후 환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진, 임동현, 오진혁. /연합뉴스

## 박정환-이슬아 반상 제패

(여수출신)

### 최철한-김윤영 조는 동메달



여수출신의 '바둑 유학생' 이슬아가 아시안게임 바둑 첫 우승자가 됐다.

박정환(17)-이슬아(19) 조가 22일 중국 광저우기원에서 벌어진 제16회 아시안게임 바둑 혼성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세하-송룡후이 조와 289수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흑으로 반집승을 거뒀다.

박-이 조는 계가 결과 1집반을 졌으나 중국이 대국 도중 수순을 어겨 벌점 2집을 받는 덕에 극적인 반집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 바둑은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첫 대회 첫 종목에서 우승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흑을 잡은 박정환-이슬아 조는 초반 4귀를 차지하는 철저한 실리작전을 펼쳤고 백을 친 중국은 자연스럽게 세력바둑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한국은 포석에 실패하며 좌변에 백의 큰 집을 허용했다.

추격에 나선 박-이 조는 우변과 상변 바귀치기를 시도하며 반상 변화를 도모했으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한국 바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최철한 수읽기에 몰입하던 중국의 여자대표 송룡후이가 자신의 순서가 아닌데도 돌



박정환-이슬아

을 놓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번 대회에서 착수 위반은 벌점 2집이 주어진다.

결과 2시간 30여분의 대접전 끝에 계가한 것과 한국은 1집반이 모자랐던 중국이 벌점을 당하는 바람에 짜릿한 반집승으로 정상에 오르게 됐다.

여수 출신인 이슬아는 초등학교 3학년때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며 상경한 '바둑 유학생'으로 이번 대회에서 1993년 생인 박정환과 10대의 힘을 과시하며 바둑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함께 벌어진 3-4위 결정전에서는 최철한-김윤영 조가 대만의 저우원신-미상협 조에 1집반 승을 거둬 동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神弓 천하 28년' ... 남 단체 AG 8연패

### 막내 김우진 텐·텐 활약 중국에 대역전쇼

한국 남자 양궁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8연패 위업을 이뤘다.

한국은 22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아오티 아처리 레인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을 222-218로 격파했다.

한국은 이로써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부터 올해 대회까지 남자 단체전에서 무려 8차례 연속 패권을 틀어쥐었다.

한국은 에이스 임동현(24·청주시청)과 고교생 신궁 김우진(18·충북체고), 베테랑 오진혁(29·농수산홍소령)이 출전했다. 임동현은 2002년 부산 대회와 2006년 도하 대회, 이번 대회까지 3차례 연속으로 단체전 금메

달을 목에 걸었다. 초반부터 접전이 벌어졌고 후반에 승기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승리는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은 세계 최강 한국의 몫이었다.

한국은 임동현과 김우진, 오진혁이 차례로 시위를 당겼고 중국은 상유, 천원유안, 다이샤오상의 순서였다.

한국은 2연드 마지막 3발에서 중국이 10점, 10점, 10점을 쏘는 동안 9점, 9점, 8점을 쏘면서 111-114로 뒤처졌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3연드에서 10-9-10점, 10-9-9점으로 안정적인 점수를 쏘았다. 중국이

10-8-10점, 9-9-9점을 쏘았다. 그렇게 스코어는 마지막 4연드를 앞두고 193-194로 1점 차까지 좁혀지면서 한국의 뒤집기가 기대됐다.

그러나 한국은 마지막 연드 첫 3발에서 임동현이 8점, 김우진이 10점, 오진혁이 8점을 쏘아 패색이 짙어졌다.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결승전에서, 그것도 마지막 연드에서 8점은 치명적 실수일 수밖에 없었다.

고압계도 중국이 달아나지 못했다. 9점, 8점, 8점을 쏘았다. 점수 차는 여전히 193-194, 1점차로 유지됐다. 한국은 마지막 3발에서 임동현이 8점을 쏘면서 당황했으나 김

국기별 메달 순위 (22일 20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51	77	72
2	한국	58	50	66
3	일본	30	58	67
4	이란	12	8	15
5	홍콩	8	13	12
11	북한	5	8	13

우진과 오진혁이 연속으로 10점을 꽂아 동요의 실수를 깨끗하게 수습했다.

중국의 마지막 3발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상황. 중국은 천원유안 9점에 이어 사대에 나선 다이샤오상이 난데없이 6점을 쏘고 말았다. 승부는 그대로 끝났다. /연합뉴스

## 광양시청 최복음 2관왕

### 황선옥 개인전 등 3관왕



한국 여자 볼링팀의 에이스 황선옥(22·경택시청)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볼링 개인종합에서 1위에 오르면서 5인조와 개인전까지 모두 3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황선옥은 22일 광저우 테허 볼링관에서 열린 여자 5인조 경기를 1414점으로 마쳐 개인전과 2인조, 3인조, 5인조 경기의 24게임 성적 합계로 순위를 매기는 개인종합에서 5연승(508점)을 기록, 2위인 5279점의 최진아(26·대전시청)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부 개인전에서 우승했던 황선옥은 이날 5인조에서도 최진아와 손연

희(26·용인시청), 홍수연(26·서울시실공단), 강혜은(26·창원시청), 전은희(21·한체대)와 함께 6천711점을 합쳐 2위 인도네시아(6천340점)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남자 5인조 경기에서도 최복음(23·광양시청), 최용규(23·부산시청), 장동철(24·울주군청), 조영선(24·양산시청), 서상천(26·계천시청), 홍해솔(20·한체대)이 번갈아가며 출전, 5인 점수 합계 6654점으로 말레이시아(6579점)를 2위로 밀어내고 우승했다.

지난 20일 3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여천실고 출신의 최복음은 장동철, 최용규와 2관왕에 올랐다.

한편 최용규와 최복음은 개인종합 결승에서 각각 5441점과 5432점을 기록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양궁의 '차세대 에이스' 김우진(18·충북체고)은 22일 "중국이 막판에 실수할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우진은 이날 광저우 아오티 아처리에서 열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극적인 뒤집기를 내심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한국을 만나면 더욱 긴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점수는 뒤처져 있었지만 중국이 실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24발 단체전에서 4연드 첫 3

**'고교생 공사' 김우진**  
"中 막판 실수 할 줄 알았다"

발까지도 한국에 앞서가면서 승기를 잡은 듯했으나 22발째에 다이샤오상이 어이없는 6점을 쏘면서 금메달을 한국에 헌납했다.

지난 20일 남자부 예선에서 4개 거리 개인싱글 합계 1387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내건 세계신기록 포상금 1만달러(미화)도 거머쥔 김우진은 이번 대회 개인전의 유력한 우승후보다. /연합뉴스

**'얼짱 신궁' 기보배**  
미모·실력 최강 인기폭발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낸 여자 양궁 대표팀의 막내 기보배(22·광주시청) 선수가 국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2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아오티 아처리 레인지에서 홈팀 중국과의 여자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연장 혈투 끝에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두 번째 연장전에서 국가 대표팀 주전정과 기보배, 윤옥희 선수는 모두 10점 쏘며 멋진 승리를 이끌어 냈다.

경기가 끝나자 한국 선수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대표팀의 막내 기보배 선수는 큰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와 귀여운 눈웃음을

으로 중국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중국 포털사이트에서는 "두 번째로 쓴 한국 양궁 선수가 예쁘다" "예쁜 여자가 활도 잘 쏜다"며 기보배 선수에 대한 칭찬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도 '얼짱신궁' 기보배가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경두의 에페 단체전 金찌르기

(해남출신)



해남출신 박경두(익산시청)가 활약한 펜싱 남자 대표팀은 21일 광저우 광다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북방' 카자흐스탄을 45-3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 달성에 성공했다.

정승화(부산광역시청)-김원진(울산광역시청)-정진선(화성시청)-박경두(익산시청)로 이뤄진 한국은 시종일관 카자흐스탄을 압도하면서 아홉번째 경기에 출전한 정

진선이 39-24 상황에서 마지막 검을 이어받아 45-31로 경기를 끝내고 지난 2006년 도하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의 대업을 완성했다. 그러나, 8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한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져 은메달에 그쳤다.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구본길(동의대)을 비롯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원우영(서울메트로)과 오은석(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2일 광저우 광다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44-45로 져 은메달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연합뉴스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Sunflower Dinner Show ₩150,000원(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Merry Christmas

Christmas family buffet

▲ 12월 24일 | 18:00~21:00

▲ 12월 25일 | 12:00~15:00

---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

**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